

대북 경수로제공협상 타결

'94년 10월 제네바 북-미합의에 따라 '99. 6. 12일 북한에 제공할 경수로제공협상이 이날 최종 타결됐다.

북한과 미국은 '95년 5월 20일부터 말레이시아 팔라렘푸르에서 진행해온 협상을 통해 경수로의 노형, 경수로 건설의 주체, 경수로 부대시설 등 핵심쟁점들에 대한 이견을 해소하고 이날 '공동보도문'을 발표했다. 경수로의 노형은 미국의 설계와 기술에 기초한 개량형

으로 명시했지만 사실상 한국형을 채택했다. 경수로원전 건설 주체도 구체적으로 명기하지는 않았지만 한국의 중심적 역할을 인정했다.

경수로 대상은 각각 1백만kW 발전능력의 이중냉매고리식 가압경수로 2기로 이루어지며, 북한정부를 대표하는 대외경제위원회와 KEDO가 열쇠넘겨주기조건(턴키방식)으로 경수로제공에 관한 협정을 조속한 시일안으로 체결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국제원자력기구 탈퇴 선언

북한은 '99. 6. 13일 외교부대변인 성명을 통해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탈퇴한다고 발표했다. 또 이날 탈퇴 통보문을 IAEA 기탁국인 미국에 전달함으로써 IAEA로부터 정식 탈퇴했다.

IAEA 회원국으로서 이 기구를 탈퇴한 것은 북한이 처음이며 핵무기비확산조약(NPT)에 가입하고도 IAEA 회원국이 아닌 나라는

43개국(NPT체약국 162개국, IAEA회원국 119개국)으로 늘어났다. 북한은 IAEA 탈퇴를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천만번 정당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유엔의 제재는 우리에게 대한 선전포고"라고 호언했다. 그러나 북한이 IAEA를 탈퇴한 것은 핵문제 해결을 대화채널을 북-미간 회담으로 단일화 하려는 의도로 분석됐다.

안변에 청년발전소 건설

북한은 강원도 안변군에 금강산발전소로 널리 알려진 81만kW 발전시설용량의 안변에 청년발전소가 건설되고 있다.

북한의 수력발전부문 가운데 가장 큰 용량으로 계획된 이 발전소는 창도 금화 회양 고성 안변 등 5개 군을 걸쳐 서해로 흐르는 북한강·임진강·고미탄천과 7개의 작은 하천을 수원으로 한 유역변경식이다.

북한은 이들 수원의 물을 북한강 부근의 임남저수지(저수능력 26억2천400만t)와 전곡저수지(9억7천만t), 임진강과 고미탄천 부근에 장안저수지(6억2천만t)와 내평저수지(5억1천만t)에 저수한 후 임남수로(45km), 내평·장안수로(58.2km)를 통해 3백여m 경사진 동해안의 안변지구로 역류시키고 있다.

안변청년발전소는 지난 '86년 6월 김일성 주석이 대자연개조사업의 일환으로 연간 강수량 1,500mm에 달하는 강원도 일대에 대형 수력발전소를 건설할 것을 지시함에 따라 같은 해 10월 착공됐다.

북한은 '90년 이전에 이 발전소를 조기완공한다는 계획 아래 제3차 7개년 인민경제발전 계획('87~'93년)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했다.

김 주석도 여러 차례에 걸쳐 금강산발전소 건설총계획을 일일이 검토한 것은 물론 70여

차례에 걸쳐 교시를 하달해 물길굴(지하수로) 언제, 발전소 위치까지 일일이 정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일 총비서도 발전소 착공후 무려 90여 차례에 걸쳐 단계별 건설목표를 일일이 지시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지속적인 경제침체로 투자재원 조달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건설실적이 급속히 둔화됐고 북한은 완공기한은 '90년대 이후로 넘게 됐다.

침체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것은 지난 '94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9기 7차회의에서 대규모 발전소 건설을 통한 전력 증산이 강조되면서 부터이다. 김 총비서도 지난 '96년 6월과 9월 중순 이곳을 방문해 조기완공을 독려했고 같은 해 7월 2일에는 군최고사령관 전신명령 제 001호 '금강산발전소(현 안변청년발전소) 건설에 동원된 군인들과 건설자들에게 감사를 줄 데 대하여'를 하달했다.

건설이 활기를 띠게 됨에 따라 이 발전소는 지난 '96년 9월 부분 완공돼 같은달 18일 1단계 조업했다. 당시 북한의 언론매체들은 1단계 공사에 대해 "작업량에 있어 서해갑문 건설에 비해 2배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0년이라는 공사기간에도 불구하고 1단계 조업 당시 발전시설용량 81만kW라는 당초 목표

에는 턱없이 모자라는 20만kW를 조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2단계 공사는 1단계 조업이 이뤄진 직후인 9월 25일부터 시작됐으며 이와 때를 같이해 금강산발전소라는 명칭이 안변청년발전소로 바뀌었다.

북한은 이 발전소에 대해 “나라의 전반적 경제발전은 물론 중요공업부문이 수많이 배치되어 있는 중부지역인 강원도와 황해남북도 일대에 절실히 요구되는 전력문제를 푸는데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며 현재 건설을 다그치고 있다.

태천수력발전 3호기 발전소 착공

최근 북한에서는 전력생산 정상화를 위해 발전소 건설이 한창이다. 그 가운데 북한이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바로 평안북도의 태천수력발전종합기업소이다.

이 기업소는 평안북도 태천군 대령강 지류에 건설중에 있는 태천 1~5호 발전소를 통칭하는 것으로 지난 '81년 8월 4대자연개조사업의 하나로 건설이 추진돼 현재도 진행중에 있다.

4대자연개조사업이란 '81년 10월 당중앙위 제6기 4차 전원회의에서 제기돼 추진된 것으로 ▲서해갑문 건설 ▲태천수력발전소 건설 ▲30만정보 간석지 개간 ▲20만정보 새땅찾기를 말한다.

태천수력발전종합기업소는 총 74만6천kW(조선신보 '88년 9월 보도)로 계획됐는데 1호 발전소의 생산능력은 15만kW, 2호 발전소는 50만kW, 3~5호 발전소는 각각 3.2만kW이다.

이 기업소의 전력생산방식은 유역변경식으로, 압록강의 지류인 자강도의 충만강과 위원강, 그리고 평안북도 의동천과 남천 등 4개 강물을 유역변경하기 위해 100리 터널수로(판평 → 송원 → 태천)를 건설했다.

태천수력발전종합기업소는 유역변경된 강물을 이용해 태천저수지 북쪽에 위치한 제1호 발전소에서 발전을 한 후 대령강으로 방류하며 이를 이용해 2~5호 발전소에서 전력을 생산하는 형태로 돼 있다.

북한은 지난 '88년 8월 30일 태천수력발전종합기업소의 1호와 2호 발전소 건설을 끝내고 부분 조업했다. 그러나 2호 발전소의 경우 건설이 마무리된 것이 아니라 발전기 몇 개를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1호와 2호 발전소의 발전능력이 당초 계획된 65만kW가 아니라 40만kW밖에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확인되고 있다.

'99년 1월 북한은 그동안 공사를 중단해 왔

던 발전소 건설을 재개, 2호 발전소 확장공사와 3~5호 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김정일 총비서도 지난 1월계 2호 발전소 확장공사와 3~5호 발전소 건설현장을 둘러본 후 “전력을 확고히 앞세우는 것은 인민경제의 비약적 발전을 이룩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된다”고 강조하며 조속한 완공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태천수력발전종합기업소 관계자들은 지난 1월 22일 건설현장에서 쫓겨나기를 열고 건설을 다그쳐 나갈 것을 다짐했다.

이튿날인 23일에는 태천 3호 발전소를 착공했다.

북한은 이곳 발전소 건설을 통해 전력난 해소는 물론 ▲홍수방지 ▲평안북도지역 농업용수 공급 ▲인공휴양지 조성 ▲양어장 건설 ▲수상운수(80여km의 뱃길 조성) 활성화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 발전소에 쓰이는 발전기와 터빈은 남포시 대안구역에 위치한 대안중기계연합기업소에서 공급하고 있다.

